

이언진의 한시에 나타난 타자 이해의 표현 양상

서수금*

- I. 머리말
- II. 한시에 나타난 타자 이해의 표현 양상
 - 1. 호동인, 詩로 代辯하다
 - 2. 일본, 文士와 通하다
 - 3. 신분의 벽, 文章으로 通하다
- III. 맺음말

I. 머리말

이언진¹⁾은 신분질서가 가장 견고했던 조선 후기의 역관 문인이다. 당시 주류계층에 속하지 않을 경우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제한된 역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이언진은 자의식이 강한 시인이어서

*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1) 李彥璵(1740~1766)은 一名 湘藻라 하고, 본관은 江陽(지금의 陝川)이며, 자는 虞裳, 호는 松穆館·滄起·雲我 등이다. 역관 집안에서 태어났고, 실학의 대가 李家燾(1742~1801)의 아버지인 李用休(1708~1782)에게 수학했다. 1759년(영조 35) 20세에 역과에 합격하여 사역원주부가 되었고, 24세 때인 1763년 계미통신사 조엄(1719~1777)을 수행하여 일본에 다녀왔다. 27세인 1766년(영조 42)에 부인 유씨와의 사이에 딸 하나를 두고 병으로 사망했는데, 동생인 彦璿의 아들 復基를 후사로 삼았다.

역관이라는 고정된 역할에만 묶여있지 않았다. 그는 지배계층의 주요 소통도구인 漢詩라는 매체를 통해 당대 사회의 타자 이해는 물론, 신분의 벽을 초월한 소통을 지향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이언진에 대한 연구는 문집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방면에서 논의되었으며, 최근에는 그의 삶을 재구성한 평전이 출간되었다.²⁾ 이로써 이언진의 문학적 업적에 대한 위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언진의 작품에 나타난 타자 이해의 표현 양상에 주목하였다. 이언진은 일차적으로 자신이 주류계층의 타자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을 비롯한 또 다른 타자에게로 시선을 맞추거나, 上位 타자를 향해 소통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매우 적극적이며, 주체적인 행위라 하겠다. 이언진의 타자 이해는 먼저 조선의 도성 그 주변을 배경으로 한다. 도성 주변에는 여러 부류의 군상들이 공존하고 있다. 그 군상들 가운데 호동이라는 공간에 거주하는 군상들, 즉 호동인에 대한 시선이 주목을 요한다. 나아가서 그의 타자 이해는 조선 밖의 세계로 확장되기에 이른다. 그곳은 바로 조선의 타자 오랑캐국 일본이다. 당시 조선에서 일본을 타자로 이해하는 기준은 소중화 의식이었다. 하지만 이언진의 소중화 의식은 지배계층인 사대부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이언진이 사행에서 목격한 일본의 실상과 일본 문사들과의 교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가 교류한 문사들은 신분이 아닌 문인으로서 그를 상대해 주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일본은 야만의 나라가 아닌 문장을 아는 선비가 존재하는 나라, 장서가들이 존재하는 나라로 인식의 전환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언진의 문집에는 한시를 비롯한 여러 장르의 문학작품이 전하지만, 현재로서는 漢詩가 주류를 이룬다. 본고에서는 이언진의 한시에 나타난 타자 이해의 표현 양상을 다음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2) 박희병, 『나는 골목길 부처다』, 돌베개, 2010.

II. 타자 이해의 표현 양상

1. 호동인, 詩로 代辯하다

이언진은 衚衕이라는 공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호동’이란 ‘거리’ 혹은 ‘골목길’을 뜻하는데, 특히 도시 서민들이 거주하던 공간 주변을 말한다. 호동이란 단어는 ‘閭巷’이나 ‘市井’이란 말과 같은 뜻으로, 당대에는 ‘여향’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였다. 이언진은 자신이 사는 누추한 공간, 곧 호동을 본떠서 堂號를 호동이라 불렀다.³⁾ 호동은 곧 이언진 자신을 의미하기도 했던 것이다. 호동이란 단어는 지리적으로 서울에 한정되어 사용되었다. 이 공간은 양반 사대부의 주거 공간과 구별되는, 누추하고, 시끄럽고, 가난하고, 비좁고, 비천한 곳을 대변한다. 본고에서는 ‘여향’을 ‘호동’이라 부르기로 한다. 특히 六言 연작시 『衚衕居室』에는 170여 수의 작품이 담겨 있는데, 박희병은 이언진의 문집에 실려 있는 『호동거실』을 따로 분리하여 『저항과 아만』이란 한 권의 시집으로 묶었다. 저자에 의하면, ‘抵抗과 我慢’이란 단어가 시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축으로서 전방위적이고, 발본적인 ‘저항’이 시인의 ‘아만’과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⁴⁾ 이들 시편에는 이언진 자신의 서사가 주류를 이룬다. 하지만 그 가

3) 박희병, 『저항과 아만』, 돌베개, 2009, 12쪽 “구양수는 자신의 서재를 ‘書舫’이라 했고, 육유는 ‘書巢’라 이름 했다. 비록 記文(記文은 건물이나 서재의 조성 경위라든가 그 이름의 유래를 밝힌 글)같은 건 없지만, 호동이라는 내 집 이름 두 공과 같네[書舫寄情永叔, 書巢命名放翁, 雖無文章爲記, 衚衕差同兩公.]” 『호동거실』 154수, 박희병(2009), 앞의 책, 377쪽 재인용.

4) 이언진의 문집 판본은 모두 네 가지인데, 활자본 『송목관신여고』, 목판본 『송목관집』, 필사본 『송목각유고』, 서울대 소장 『송목관집』 등이다. 박희병은 이들 문집에 실려 있는 『호동거실』 170여수를 따로 묶어 『저항과 아만』이란 시집을 펴냈다. 본고는 이 책에 실린 작품 배열 순서를 따랐고, 번역은 일부분 수정하여 제시했다.

운데는 조선후기 양반사회의 주변인, 특히 도성의 뒷골목 가장 낮은 곳에 거주하는 호동인들에 대한 시편들이 실려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언진의 삶의 공간이자 글쓰기의 공간은 바로 ‘여항’, 곧 호동이었던 것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이들은 조선사회의 基底를 이루며 살고 있으며, 좀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존재들이기도 하다.

- (1) 五更頭晨鍾動 새벽종이 울리자
 通衢奔走如馳 호동 사람들 참 분주하네.
 貧求食賤求官 먹을 것을 구하거나 벼슬 얻기 위함이었지.
 萬人情吾坐知 만인의 마음 나는 앉아서도 안다네.⁵⁾
- (2) 來者牛去者馬 가는 것은 소, 오는 것은 말.
 溺于塗糞于市 길에는 오줌, 저자에는 똥.
 先生鼻觀清淨 선생은 코끝으로 청정을 관하고,
 床頭焚香一穗 책상머리에 향 하나 피웠네.⁶⁾

(1)은 호동의 아침 풍경이다.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호동인들의 바쁜 움직임이 시인에게 포착되었다. 이들의 분주함은 각양각색이다. 단순히 생계를 위해 분주한 사람, 나아가 개인의 욕망을 위해 분주한 사람 등등이 각기 다른 목적을 띤 채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분주함과 달리 분리된 공간에서 밖의 세상을 관망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대조를 이룬다. 시인은 천차만별인 호동인들의 욕망을 헤아리지만, 자신은 정작 이러한 욕망과 거리를 둔 채 관찰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에서는 호동의 모습이 조금 더 逼真하게 다가온다. 비좁은 골목에 사람과 짐승들이 오가면서 남긴 배설물들이 군데군데 널려있고, 이들이 내뿜는 소음까지 뒤엉켜 그야말로 더럽고, 시끄러운 공간임을 짐작하게 한다. 여기서도 시인은 세속적인 밖과 대조적인 공간으로 방을 설정하였다.

5) 『호동거실』 1수.

6) 『호동거실』 4수.

그리고 시인은 그 공간에 향을 피워놓고 앉아 있다. 번잡한 세상과 달리 고요하고 청정한 방 안 세상이 俗과 聖의 공간처럼 대조를 이룬다. 속과 성은 이질적인 공간이지만, 분리된 공간이라기보다 공존하고 있는 공간이다. 바로 시인의 공간과 호동인의 공간이 분리될 수 없는 동일한 공간 속의 다른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시인은 포용적인 자세로 타자의 공간을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과 (2)는 호동의 분위기를 묘사한 것이라면, 다음은 호동의 군상들에 주목한 시편들이다.

- (3) 呼不受蹴不食 욕하거나 깔보면 받지 않으니,
 丐子豈無廉恥 거지에게도 자존심이 있네,
 取必宜分必均 대의에 맞게 흠쳐 공평히 나누니,
 偷兒亦有仁智 도둑에게도 어짊과 지혜가 있네.⁷⁾
- (4) 時來三台八座 명명거리는 고관대작들
 管甚才也命也 재주며 팔자랑 무슨 상관인가.
 道在行商市儈 길 위의 행상과 거간꾼들은
 任他譽者毀者 칭찬과 비난에 개의치 않는데.⁸⁾

(3)에서는 거지와 도둑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거지는 호동에 거주하는 군상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자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에는 무언지 모를 正當함이 내포되어 있다. 여기에는 시인의 목소리가 한 뉘를 한다. 먹을 것을 구하러 왔는데, 욕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거부할 줄 아는 거지의 자존심과 넘치는 재물을 쌓아놓고도 나눌 줄 모르는 자의 재물을 흠쳐서 대의에 맞게 공평히 나눌 줄 아는, 도둑의 행위에 어짊과 지혜가 있다고 한다. 거지와 도둑은 별개라기보다는 동일한 집단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 즉 거지는 삶의 일차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도둑으로 변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대부의 입장에서 보면 쓸모

7) 『호동거실』 21수.

8) 『호동거실』 30수.

없는 부정적인 타자들일지 모르지만, 시인은 이들도 인간의 자존심을 가진 존재들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언진과 동시대에 거지의 삶을 기록한 작품으로는 成大中の『丐帥傳』(『靑城雜記』)과 李用休의『海西丐者』(『惠寔雜著』) 등이 있다. 이 작품들은 모두 산문으로 기록되었고, 집단이 아닌 특정 개인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이언진의 작품과 차이를 보인다. 특히『개수전』은 실존 인물인 '거지 왕초[丐帥]'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거지의 생태에 대한 언급은 물론 거지의 조직과 규칙이 쓰여 있다. 무엇보다 이 작품에서 주목되는 것은 거지가 했던 말이다. “우리들은 비록 거지이지만, 또한 나라의 백성입니다[小人雖丐, 亦國民也].”⁹⁾ 이들은 비록 신분이 비천하여 천대받는 집단이지만,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주장은 거지들의 자존심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이언진의 시에 내포된 의미와 상통한다 하겠다.

(4)에서는 '고관대작'과 '행상·거간꾼'을 대비시키고 있다. 행상·거간꾼은 중소상인을 대표하며, 고관대작의 타자라는 점에서 대비되는 군상들이다. 양반의 나라 조선에서 사대부와 상인의 위계상 차이는 크다. 그런데 두 계층을 대비시킨 시인의 의도는 무엇일까. 재주나 팔자와 상관없이 문벌의 혜택으로 벼슬자리에 오른 이들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매일매일 치열한 경쟁을 치르는 중소상인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고관들은 높은 지위에 있기에 체면을 중히 여겨서 칭찬과 비난에도 민감한 존재들이다. 생산 활동이나 그 밖의 인간의 활동에 무관심한 이들은 오로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걸치레에 민감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높은 벼슬에는 평생 오를 수 없는 신분이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삶을 영위하는 상인들은 걸치레나 남의 칭찬에 무관심하다. 오직 자

9) 김준형, 『청성잡기를 통해 본 거지와 거지 이야기』, 『민족문화사연구』, 제40집, 민족문화사학회, 2009, 178쪽 재인용.

신의 본업에 충실할 뿐인 것이다. 따라서 시인은 비생산적이고, 체면유지에 민감한 고관들의 태도를, 상인들의 인간적이면서도 생산적인 행위와 대비시켜 비판적인 시선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언진과 동시대의 유학자 兪漢雋(1732~1811)은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온갖 수단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 봉록을 챙기고 있는 관료들을 “관직을 잡아먹는 좀¹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3)과 (4)에서 형상화하고 있는 ‘거지와 도둑’, ‘행상과 거간꾼’은 조선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대표하며, 사대부의 타자들이다. 특히 (3)의 군상들은 호동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들이다. 굶어죽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은 잃지 않겠다는 거지의 태도나 불의한 재물을 훔쳐 공평하게 나눠 가질 줄 아는 도둑의 지혜는 신분적인 차별로 고통을 겪었던 시인만이 포착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한다. 이언진은 이처럼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 가장 소외된 자, 그래서 자기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자들을 주목하여, 이들의 존재를 詩로서 대변한 것이다. 여기서 이언진은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타자의 삶을 평가하거나 재단하기보다는 타자의 존재, 그 자체를 긍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일본, 文士와 通하다

다음은 조선의 타자로서의 일본에 대한 이언진의 타자 이해의 표현 양상을 살펴보자.

雲我先生其號 호는 운아선생이고
 計今歲二十六 올해 나이 이십 육세.
 姓名流傳海外 성명이 흘러 해외에 전하니

10) “…此夫所謂冠裳之蠹也”, 兪漢雋, 『自著』, 卷之二十七, 『右閩問數』.

蠻夷有文字國 오랑캐 중에 문자국이 있네.¹¹⁾

이 시는 이언진이 일본 사행 이후에 일본에서 지은 시들을 선별하여 『일본시집』이라는 제목의 책을 엮었는데, 여기에 실은 작품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 작품은 문집에 남아 있지만, 책은 전하지 않는다. 당시 일본도 전형적인 신분제 사회로, 지배 신분에 속하는 武士와 피지배 신분에 속하는 서민 사이에 넘기 어려운 선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촌락의 거주민인 농민은 百姓[하쿠쇼]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고, 농업이라는 생업을 떠나서 생활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도시의 거주민인 상공인은 町人[조닌]이라는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고, 상공업이라는 생업을 떠나서 생활할 수 없었다. 이미 조건이 한정된 사회체제의 틀을 서민들이 뛰어넘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幕藩體制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¹²⁾

이와 같이 일본은 武士의 나라로서, 文士보다 武士가 우대받는 나라였던 것이다. 더구나 일본에는 과거제도가 없었기에 무사 집안의 자제는 대대로 관직을 세습 받아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대로 무사 집안 출신이 아닌 경우에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평생 관직에 진출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왕조의 文官우위의 정치체제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세습적 신분을 가진 武家の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배체제의 상위도 상호이해를 방해하고 있었다.¹³⁾

11) 이언진, 『송목관신여고』, 『自題日本詩集』.

12) 18세기 일본의 경우도 전형적인 신분제 사회로, 지배 신분에 속하는 무사와 피지배 신분에 속하는 서민 사이에 넘기 어려운 선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원칙적으로 촌락의 거주민인 농민은 하쿠쇼[百姓]라는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었고, 농업이라는 생업을 떠나서 생활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도시의 거주민인 상공인은 조닌[町人]이라는 신분을 원칙적으로 벗어날 수 없었고, 상공업이라는 생업을 떠나서 생활할 수 없었다. 이미 조건이 한정된 사회체제의 틀을 서민들이 뛰어넘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幕藩體制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태환, 『에도시대의 신분질서 사상』, 『일본학보』 제69집, 한국일본학회, 2006, 426쪽.

13) 고바야시 유키오, 『조선통신사와 민중』, 『日本學年報』, 제3집, 일본연구학회, 1991, 79쪽.

이러한 양국 사이의 미묘한 차이는 문사가 우대받는 양반의 나라 조선의 관리들은 물론 백성, 그리고 일본을 오가는 사행단조차 일본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차단한 채,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일본에 문사가 존재하더라도 학문적으로 낙후되어 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오랑캐국, 야만의 나라라는 뿌리 깊은 인식을 갖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언진 또한 이러한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하지만 일본 사행을 통해 일본의 변화상은 물론 개방적인 학문풍토를 목도하고, 일본 문사들과의 필담 등에서 일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계미년 12월 이언진이 龜井南冥[가메이 난메이]과 필담 중에, “하늘이 재주 있는 사람을 낳는 건 특정한 곳에 한정되지 않아,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군요.”¹⁴⁾라고 했던 말이 주목된다. 즉 하늘이 인재를 낳 때는, 특정한 나라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고루 내려 주었는데, 인간이 제도를 만들어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언진의 이 같은 발언은 당시 정사 조엄을 비롯한 사신단 일행이 일본 문인에 대해 우월의식을 나타냈던 것과 달리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 일본은 세계 여러 나라와 교역하며, 적극적으로 선진문물을 도입하고 있었다. 학문적인 분위기도 조선처럼 중화의식에 고착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언진은 조선이 일본에 대한 편견을 벗어나 할 때라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언진의 이 같은 생각은 원중거의 견해와도 일치되는 면이 있다. 나아가 이언진은 龜井南冥에게 “귀국의 문장 중에 훌륭한 것 훌륭하지 못한 것을 막론하고 모두 갖고 와서 제가 머무는 방의 창 아래 책상에서 손뼉을 치며 서로 맘껏 논한다면 진실로 천고의 快事일 것”¹⁵⁾이라고 말한다. 이

14) 가메이 난메이(龜井南冥, 1743~1814), 『泱泱餘響』, 박희병(2010), 앞의 책, 41쪽 재인용.

15) 가메이 난메이(龜井南冥), 『泱泱餘響』, 박희병(2010), 앞의 책, 41쪽 재인용.

언진의 지적인 욕망은 물론, 국적과 지위를 초월한 소통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앞서 이언진은 조선을 떠나 勝本海[잇키]의 배 안에서 사신단에게 자신이 지은 시를 보여주며 評을 구한다. 조선에서는 스승 이외에 좀처럼 시도하지 않았던 행동이다. 조선이라는 답답한 공간을 벗어나 바다라는 공간에서 비롯된 자유로움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제술관을 비롯한 三書記에게 詩評을 구한 것은 의외의 행동이다. 스승 이용휴의 증언을 보기로 한다.

하지만 세상에 알려지기를 구하지 않았으니, 그를 알아줄 만한 사람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 남에게 이기기를 구하지 않았으니, 이길 상대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끔 원고를 꺼내 나에게만 보여주고 도로 상자에 넣어 둘 뿐이었다.¹⁶⁾

이언진의 이러한 태도는 신분이라는 제도에 막혀 소통하기 어려운 답답한 조선사회에 대한 저항의 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구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미천한 신분이라는 제한 때문에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신분으로 재능을 평가하고, 미천한 신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자각에서 오는 체념이자, 반대급부로서 신분사회에 대한 저항이 아니었을까. 당시 이언진에 대해, 1763년(계미년) 12월 1일 남옥과 원중거의 기록을 살펴보자.

(1) 이언진이 <해담편> 및 고체 몇 편을 보여주었다. 학식이 해박하고 문체가 찬란하니 진실로 당세의 기이한 재주이다. 그 자취가 역관

16) “…然不求知於世, 以世無能知者, 不求勝於人, 以人無足勝者, 惟間出薦余, 還錮之篋而已.” 『松穆館集』序, 惠賔李用休.

사이에 섞여 있는데도 능히 이와 같고 사람됨 또한 밝고 빛나니 가히 진흙 속의 연꽃이라고 할 만 했다.…¹⁷⁾

(2) 譯士인 이언진은 자를 우상이라고 하는데 바야흐로 스물네 살이다. 『해람편』 장단구를 쓰고 아울러 古詩 두 편을 써서 소매에 넣어 가지고 와서 평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좌중에서 둘러가며 읽어보니, 모두 붉게 평을 하고 돌려주게 되었다. 모두 기이한 재주였다. 제목을 ‘海覽’으로 했으니, 험운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대저 그 체제가 雅正하지는 않으나 그 기이하고 밝음은 문무에 통달한 듯하다. 사람이 이와 같은 재주를 가지고도 머리를 수그리고 역관의 직업에 종사하니 애석하구나.¹⁸⁾

남옥¹⁹⁾과 원중거²⁰⁾는 서얼 즉 중인 출신임에도 역관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사행 중에 만난 이언진의 文才에 감탄하고, 역관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인다.

-
- 17) 남옥 저·김보경 옮김, 『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소명출판, 2006, 273~274쪽.
 18) 원중거 저·김경숙 옮김, 『조선 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소명출판, 2006, 155~156쪽.
 19) 南玉(1722년~1770)은 본관이 宜寧, 자는 時韞, 호는 秋月이다. 1763년(영조 39) 계미통신사의 제술관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그의 문학적 특징은, 金昌翁과 陸游의 시세계를 추종하였고, 서정성이 강한 시를 지었다. 文에 있어서는 당송고문의 경향을 띤다. 일본 사행 후 『日觀詩草』, 『日觀唱酬』, 『日觀記』 등의 방대한 저술을 남겼는데, 이 기록들은 趙曦의 『海槎日記』보다 더 상세하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관기』의 座目·路程·供待·酬唱諸人 등의 기록은 당시의 사회상과 생활상, 한일 양국간의 문학적 교류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20) 元重舉(1719년~1790)는 본관이 原州, 자는 子才, 호는 玄川·遜菴·勿川이다. 1750년(영조 26) 司馬試에 생원 2등으로 합격하였다. 그러나 10여 년간 實職을 제수 받지 못하다가 40세가 넘어서야 長興庫奉事라는 종8품에 보임되었다. 李德懋·成大中·朴齊家·柳得恭·洪大容·黃胤錫·南公轍·尹可基 등과 교류하였는데, 그는 성현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고 세속의 명리와는 타협하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기질과 지사적인 삶은 연암그룹의 젊은 지식인들로부터 존장으로 인식되어 존경을 받았다. 또한 시인으로서의 명성은 계미통신사의 서기로 발탁되기에 이른다. 일본에서 여러 문사들과 교류하는 한편 여러 문인지식인들과 시문이나 필담을 통해 그곳의 학술과 문예를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들을 단순히 섬나라 오랑캐로 야만시할 수 없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 일본에 대한 원중거의 자세한 견문은 연암그룹의 문인지식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사행록인 『和國志』와 『乘槎錄』이 있다.

한편, 이언진은 일본에 도착한 후로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즉, 역관인 자신을 대하는 일본 문사의 태도가 조선의 사대부와 다르며, 출신에 관계없이 文人으로 대해주는 이들의 태도에 마음을 열고 長幼를 초월하여, 거침없는 필담을 나누게 된 것이다.

이언진 시대에는 중인층이 그룹을 형성해 문학 활동을 하거나, 유대를 다지는 일이 불가능했다. 이들이 그룹차원의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이언진 사후 한 세대 뒤에나 시작된다.²¹⁾ 그러므로 이언진이 일본에서 뜻이 맞는 文友를 사귀게 된 것은 남다른 체험이었을 것이다. 1764년 3월 이언진과 일본 문사 宮瀨龍門(1719~1771)과의 필담 일부이다. 龍門은 18세기에 조선통신사와 두 차례의 접촉을 가졌던 인물로 그의 선대가 중국 후한 獻帝의 후손으로 志賀空大村主에서 일본으로 귀화했다고 하여 중국식 이름으로 劉維翰이라 불렸다. 집안 대대로 의술을 업으로 하였는데, 龍門은 爾後州의 龍門山에 은거하여 수년 동안 독서에 힘썼다고 한다. 특히 荻生徂徠의 학문을 흠모하여 江戸에 나와 服部南郭(1683~1759)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재주가 뛰어났으나 同門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자 그곳을 떠나, 홀로 六經과 古文辭를 공부하여 명성을 얻었고, 국적을 가리지 않고, 두루 文友를 사귀게 되었다. 음악을 좋아하였고, 성격이 온화하고 언변이 유창하였으며, 술을 즐겨 長幼貴賤을 불문하고 밤새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였다.²²⁾

雲我[이언진의 호]: 제 주머니 속에는 초고가 많습니다. 귀국 후 한 부의 책을 저술코자 하는데, 이름을 『산호철망』이라 하겠습니다. 일본의 기인재사와 신령스런 산과 좋은 물, 진귀한 보배, 풀과 꽃, 돌과 새

21) 박희병(2009), 앞의 책, 396쪽.

22) 宮瀨龍門의 이름은 維翰, 자는 文翼, 龍門은 그의 아호이다. 통칭하여 三右衛門이라 하며, 紀州(南紀)사람이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古文孝經國字解』, 『鴻臚傾蓋集』, 『金蘭集』, 『李王七律詩解』, 『劉氏無盡藏』, 『龍門山人文集』 등이 있다. 강동엽, 『18세기 한·일 문학교류와 宮瀨龍門』, 『조선시대의 동아시아 문화와 문학』, 북스힐, 2006, 202~293쪽.

짐승 하나하나의 기이함을 또한 빠뜨리지 않고 다 포함시키렵니다. 마땅히 작은 전기를 실어, 천하 만세로 하여금 용문선생이 있으나, 문히어 세상과 만나지 못했음을 알게 하겠습니다.

龍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잘 것 없는 제 이름이 그대로 인해 귀국에 전해지는 것만도 다행한 일이거늘 그대의 비호로 인해 제 글이 千秋의 뒤까지 전해진다면, 저는 죽은 뒤에도 불후를 누리겠지요. 다만 한스러운 것은 서로 하늘 끝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 책이 완성되더라도 그걸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²³⁾

당시 龍門은 46세의 장년이었고, 이언진은 25세의 젊은이었다. 나이로 따지면,父子 사이 같은 두 사람의 필담에서 이언진의 태도는 주제넘은 당돌한 주장일 수도 있었다. 조선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龍門은 전혀 개의치 않고 책이 완성되더라도 각기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점이 한스러울 뿐이라고 응답한다. 龍門과 이언진의 국적과 長幼를 초월한 감격적인 소통 장면이라 하겠다.

또한 이언진이 귀국 후에 ‘傳’으로 宮瀨龍門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밝힌 것은 이언진과 용문의 海外知己로서 각별한 우정을 짐작케 함은 물론 오랑캐국의 문사를 入傳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언진의 남다른 안목을 읽을 수 있게 한다. 더불어 이언진의 문학창작의 활동범위를 짐작하게도 한다. 당시 入傳 대상자는 낮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격과 학식, 올곧은 가치관을 소유했거나, 그림·글씨·글·음악 등 예술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소양을 발휘하고 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며, 천재적 재능과 비상한 충기를 소유하고,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경우에 해

23) 雲我曰 吾囊中多草稿, 歸國後, 欲著書一部, 名以珊瑚鐵網, 盡括日東奇人才士, 靈山佳水珍寶, 一草一花, 一石一鳥禽之奇, 亦不漏失, 當載小傳, 使天下萬世, 知有龍門先生, 而沈沒不遇. 龍門曰 不敢當, 不敢當, 微名因公傳大邦, 既已幸甚. 況依庇傳諸千秋, 則翰也不佞, 死且不朽矣. 唯恨各天殊域, 及書就之日, 不能見之. 『筆談』, 宮瀨龍門, 『東槎餘談』卷之下. 정민, 『『동사여담』에 실린 이언진의 필담 자료와 그 의미』, 『한국한문학회연구』 32집, 한국한문학회, 2003, 102쪽, 원문 인용.

당되었기²⁴⁾ 때문이다. 다음은 宮瀨龍門의 필담집 『동사여담』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芝蘭林裏室生香 지란숲 속의 집 향기로운데,
 鵲背何來抵夜光 까치 등에 야광주 어디서 왔다.
 小別千年天地外 천지 밖에 천 년을 이별한 뒤로는
 武州東望海無梁 바다에 다리 없어 동쪽만 바라보네.²⁵⁾

이 작품은 ‘받들어 류용문선생에게 답함(奉報龍門劉先生)’이라는 詩인데, 龍門과 필담 과정에서 酬唱한 것으로 보인다. 공자는 “지초와 난초는 깊은 숲에 나서 보아 주는 이 없음으로써 향기롭지 아니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芝蘭은 용문선생을 가리킨다. 반면 ‘夜光珠’는 이언진 자신을 비유한다고 하겠다. 이 ‘야광주’는 ‘까치’ 덕분에 지란의 집에 이를 수 있었다. 여기서 ‘까치’는 ‘견우와 직녀’ 고사를 연상케 한다. 이들은 서로 떨어져 지내다가 칠석날 까치가 만들어준 오작교를 건너 일 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다. 이언진은 목동인 견우와 옥황상제의 외동딸인 직녀의 신분을 초월한 금지된 사랑에 일본 문사 龍門과의 만남을 비유한 것이다. 이언진은 자신이 사행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면 다시 만날 기약을 하기 어려운 처지를 아는 까닭에 시인의 감수성으로 이를 표현한 것이다. 武州²⁶⁾에 다리가 없다는 표현에서, 다리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가로놓인 물

24) 최기숙, 『18·19세기 ‘複數’ 창작 전의 창작 경위와 글쓰기 방식-혼적, 지역, 창조: ‘언어적’ 인간의 탄생과 棲息』, 『고전문학연구』, 제27집, 한국고전문학회, 2005, 300쪽.

25) 박희병(2010), 앞의 책, 104쪽.

26) 武州는 무사시노쿠니[武藏國]으로 지금의 도쿄를 가리킨다. 도쿄는 옛 무사시국[武藏國] : 國은 고대 일본의 행정구획]의 일부였으며,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 중기인 1457년에 武將 오타 도칸[太田道灌]이 에도성[江戶城]을 구축함으로써 도쿄의 前身으로서 에도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1590년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에도에 입성하고, 뒤이어 1603년 에도 막부[江戶幕府]를 개설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그 뒤 260여 년 간에 걸쳐 일본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로 번영하면서 대도시가 되었다. 박희병(2010), 앞의 책에서 인용.

리적 거리인 바다라는 장애물인 동시에 양반과 오랑캐라는 이념적 거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인은知己가 있는 동쪽을 바라보며, 그리워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다음은知己와의 이별을 뒷받침하는 필담 일부이다.

어떤 사람이 雲我를 부르러 왔다.

雲我: 제가 또 부르는 명이 있으므로 다시 사관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청컨대 공께서는 진중하십시오. 한 번 헤어지면 천리입니다.

龍門: 보통 살아 이별함도 슬퍼할 만한데, 하물며 공이겠습니까? 헤어진 뒤 소식은 영영 끊어질 터이니, 내가 왕유의 시에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²⁷⁾

한학역관이었던 이언진이 일본 사행을 수행하게 된 것은 天運이었다고 여겨진다. 필담이 무르익을 즈음, 상관의 부름으로 필담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만남을 기약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내비치는 두 사람의 진한 우정을 엿볼 수 있다. 다음은 〈贈人〉이라는 시이다.

七尺倭環刀 일곱 자 일본도
淬以南海水 남해의 물에 담금질했네.
丈夫重結交 장부는 결교를 중히 여겨
能生亦能死 함께 살고 함께 죽지.
所以管與鮑 그래서 관중과 포숙아는
千載遺其美 천년 뒤까지 아름다움 전하네.²⁸⁾

이 시는 일본의 어느 문인에게 준 작품이라고 하는데, 일곱 자 일본도

27) “…有人來召雲我, 雲我曰 僕又有召命, 復入使館, 請公珍重, 一別千里. 龍門曰 尋常生別, 可悲矣. 況於公乎 別後音信永絕, 余有感王摩詰之詩也…” 宮瀨龍門, 『동사여담』 卷之下, 정민(2003), 앞의 논문, 103쪽 원문 재인용.

28) 이언진, 『송목관신여고』, 『贈人』.

를 남해의 물에 담금질했다거나, 管鮑之交 고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아 우정의 맹세를 기념하여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언진이 문장을 매개로하여 오랑캐국 문인과 소통하였음을 이 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신분의 벽, 文章으로 通하다

此世界大牢獄 이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감옥
 沒寸木可梯身 빠져 나올 어떤 방법도 없네.
 八十年皆殺之 팔십 되면 모두 죽여 버리니
 無萬人無一人 백성도 임금도 똑같은 신세.²⁹⁾

‘감옥’이 뜻하는 바는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구속’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신분제가 견고하던 시기에 역관출신으로서 문학 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 자신 외에 그가 속한 사회에서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 이언진 활동 당시에는 더더욱 미약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지녔더라도 이 제도의 벽을 넘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언진이 신분이라는 견고한 벽으로 편성된 조선사회를 감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감옥은 제도라는 탈을 쓰고 인간을 차별하고, 구속하는 장치로서 조선후기 사회를 지배하였다. 이는 평생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절망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시인은 이 감옥에서 빠져 나올 어떤 방법도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3, 4구에서는 이를 부정한다. 즉 인간은 天命에 따라 팔십이 되면 모두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은 공평하여서 백성이나 임금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죽음은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인간의 한계이자 신분제의 모순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임금이든, 백성이든 모두 세계라는 감옥 안에 있는 존재이며, 죽을 수밖에

29) 『호동거실』 169수.

에 없는 운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리학적 위계성을 수긍하기 보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혹은 조롱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인다.³⁰⁾

譯官四家の 한 사람인 鄭芝潤(1808~1858)³¹⁾은 역관의 가업을 이어받지 않고, 떠돌아다니기를 좋아하였는데, 울타리 안에서 더부살이하지 않겠다며, 시 짓는 것을 구속에서 벗어나는 길로 삼았다³²⁾고 한다. 여기서 울타리는 신분의 벽을 상징하는 표현일 것이다. 정지윤 또한 창작행위를 구속에서 벗어나는 길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언진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하겠다.

이언진의 명성은 일본 문사들에게 뿐만 아니라, 귀국 후에 반년도 채 안되어 사대부 문사들의 주목을 받는다. 도학자 朴準源(1739~1807)³³⁾이 그의 형 朴胤源(1734~1799)³⁴⁾에게 보낸 편지에, “이번 통신사행에 역관

30) 박희병(2009), 앞의 책, 412쪽.

31) 역관사가는 洪世泰(1653~1725), 李彥瑱(1740~1766), 鄭芝潤(1808~1858), 李尙迪(1803~1865)을 말한다. 鄭芝潤은 자는 景顔, 호는 壽銅, 夏園子이다. 본관은 蓬山, 대대로 역관을 배출한 중인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관직은 사역원 관관을 지냈다. 趙斗淳, 金興根, 南秉哲 등 사대부들과 시를 지으며 교류하였다. 추사 김정희가 재주를 아껴, 여러 달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藏書를 읽도록 하였는데, 처음에는 독서에 전념하여 세상사를 잊은 듯하였으나, 곧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갔다. 부인 김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두었으나, 요절하였다. 평양, 묘향산 등 關西와 海西 지방을 유람하였는데, 도성에는 머리를 깎고 묘향산에 들어가 중이 되었다는 소문이 났다. 조두순이 사역원 제조가 되어 저자를 참봉으로 발탁하였으나, 업무를 방기하고 관악산에 유람 간 일로 파직되었다. 崔理煥이 활자로 문집을 간행하였다. 1858년 51세에 만취하여 김흥근의 집에서 자다가 갑자기 사망했다. 문집으로 『夏園詩鈔』가 전한다.

3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제4판), 지식산업사, 2005, 184쪽.

33) 朴準源은 본관이 潘南, 자는 平叔이고, 호는 錦石이다. 시호는 忠獻이고, 金亮行의 문인이다. 1786년(정조 10) 사마시에 합격하여, 음보로 主簿가 되었다. 이듬해 딸이 綏嬪이 되자, 健元 陵參奉·공조좌랑이 되었다. 1790년 수빈이 순조를 낳자 通政大夫에 봉해지고, 호조참의가 되어 궁중에서 순조를 輔導하였다. 1800년 순조가 즉위하자 공조참판·判書를 거쳐 돈령부 판사를 지내고, 摠戎使·어영대장·형조판서·禁衛大將 등을 역임하였다. 영의정이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小學問答』, 문집은 『錦石集』이 있다.

34) 朴胤源은 본관이 潘南, 자는 永叔이고, 호는 近齋이다. 金元行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연구하여 학자들로부터 추앙받았다. 1792년(정조 16) 學行으로 천거되어 繕工監監役に 임명되었으나 사퇴하였다. 1798년 元子를 위한 講學廳이 설치되자, 書筵官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

이언진이란 자가 있었답니다.…나이 스물 남짓인데 문장으로 이름을 떨치고 돌아왔다는군요.…詩文을 구하는 왜인들이 산처럼 몰려들었으나 붓을 휘둘러 순식간에 다 이루어 이로써 더욱 으뜸이었답니다.…오늘날 위항에 이런 기재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³⁵⁾ ‘위항’에 사대부를 능가하는 역관 문인이 있다는 데 대한 놀라움의 표현이다. 이는 앞서 남옥이나 원증거의 반응과도 일치하는 면이 있다.

한편, 이언진은 일본에서의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분을 초월한 소통을 시도한다. 그가 주목한 상대는 바로 연암 박지원이었다. 이언진은 사행단의 일원이었던 원증거·성대중을 통해 연암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는 수시로 연암에게 사람을 보내 시평을 구한다. 詩文을 통한 소통을 기대했던 것이다.

나는 우상과는 생전에 상면이 없었다. 그러나 우상은 자주 사람을 시켜 나에게 시를 보여 주며 하는 말이, “유독 이분만이 나를 알아줄 수 있을 것이다.” 했다가에, 나는 농담 삼아 그 사람더러 이르기를, “이거야말로 吳儂의 간드러진 말투이니 너무 잘달아서 값나갈 게 없다.” 했더니, 우상이 성을 내며, “僧夫가 약을 올리는군!” 하고는 한참 있다가 마침내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 세상에 오래갈 수 있겠는가?” 하고 두어 줄의 눈물을 쏟았다기에, 나 역시 듣고서 슬퍼했다.³⁶⁾

하지만 이언진의 기대와 달리 연암은 흑평으로 應對한다. 연암이 그럴

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당시 소개되기 시작한 西學을 불교와 함께 배척하고 성리학만 깊이 연구하였다. 대사헌이 추증되었다. 문집에 『近齋集』, 『近齋禮集』이 있다.

35) 朴準源, 『錦石集』5, 「上白氏」: “今番信行, 有象胥李彥瑱者, 年二十餘, 以文章擅名而歸云, …倭之求詩文者如山, 而揮灑頃刻而盡, 以此尤獨步…不意今世委巷之間, 有此奇才.”

36) 朴지원, 『연암집』, 「우상전」: “…余與虞裳, 生不相識, 然虞裳數使示其詩曰, 獨此子庶能知吾, 余戲謂其人曰, 此吳儂細唾, 瑣瑣不足珍也, 虞裳怒曰, 僧夫氣人, 久之歎曰, 吾其久於世哉, 因泣數行下, 余亦聞而悲之.”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기존 논의³⁷⁾는 각주에 제시한다. 어쨌든 이언진과 연암의 신분을 초월한 소통이 좌절당한 것은 분명하다. 이때 연암은 이언진이 보낸 詩文만은 돌려보내지 않고 간직했던 모양이다. 『우상전』에 실린 이언진의 작품 5편이 이를 증명한다. 이언진은 연암과의 소통이 좌절당하자 더욱 신분의 벽을 실감하고, 절망 속에서 병이 더욱 깊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滿腹非水非墨 뱃속 가득한 건, 물도 아니고 먹도 아니고
 先生十年血淚 선생의 십년 피눈물이지.
 一淚復成一珠 눈물 하나로 구슬 하나 만들어
 只堪奉獻知己 다만 지기에게만 봉헌하리.³⁸⁾

硯滴銘은 이언진이 피눈물을 흘리는 각고의 노력을 하며, 문장수련을 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신분의 제약으로 그 재능조차 차별을 당하는 현실에 절망하고, 오로지 知己에게만 봉헌하겠다고 다짐한다. 너무나 견고한 신분의 벽에 좌절당한 젊은 시인의 절망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연암과의 소통이 좌절당한 이후에, 어쩌면 자신이 마음을 터놓고 학문적 담론을 나누었던 오랑캐국 문인을 추억하며 지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병이 깊어진 이언진이 자신의 원고를 불태우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은 성대중을 통해 이덕무에게 전해진다.

(1) 이우상이 병세가 점차 위급해지자 그의 시문의 원고를 불사르고 스스로 이르기를 ‘공이 일월과 빛을 다룰 수 없다면, 같이 썩게 되는 것이 초목과 무엇이 다르랴.’하더라...성(성대중)이 말하기를, “이 일이

37) 이언진의 시가 왕세정의 풍격을 따라 쇠말의 표현에 집착한다고 나무랐다는 주장(정민(2003), 앞의 논문, 108~111쪽)과 두 사람의 문학적 노선, 즉 ‘법고창신론 대 창신론’의 차이 때문이라는 주장(박희병(2010), 앞의 책, 128~131쪽) 참조.

38) 이언진, 『송목관신여고』, 『硯滴銘』.

반드시 내 탓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 내가 그를 대놓고 그의 시문을 읊으면서 ‘너무 시문이 靈異하면 귀신이 노하여 용서하지 않는다.’ 하였다.”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공경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기와 상대가 되는 사람을 아끼고 다투지 않으며, 자기만 못한 사람을 어여뻐 여기고 업신여기지 않게 된다면 천하가 거의 태평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³⁹⁾

(2) 아! 나는 일찍이 속으로 그 재주를 남달리 아꼈다. 그럼에도 유독 그의 기를 억누른 것은, 우상이 아직 나이 젊으니 머리를 숙이고 도(道)로 나아간다면, 글을 저술하여 세상에 남길 만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와 생각하니 우상은 필시 나를 좋아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여겼을 것이다.⁴⁰⁾

(1)은 이덕무와 성대중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이덕무는 원고를 불사른다 해도 이미 깊어진 병에 도움이 안 되는데, 아까운 원고를 불사른 이언진의 행위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고, 성대중은 자신이 이언진에게 시문이 靈異하면 귀신이 노한다고 말한 것 때문이 아닐까 자책하는 모습이다. (2)는 연암이 이언진의 시문을 혹평한 것에 대해 후회하며, 당시 그렇게 말한 이유를 내세우며 변론한 것이다. 연암이 보기에 “우상은 일개 역관에 불과한 자로서, 나라 안에 있을 때는 소문이 제 마을 밖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벼슬아치들이 그의 얼굴조차 몰랐던”⁴¹⁾ 존재였다. 그런 그가 일본에 다녀온 후, 연암에게 시평을 부탁하기까지 했으니, 연암이 보기에 이언진의 존재는 문학적 지식을 소유한 역관 그 이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언진에 대한 연암의 태도에는 일정부분 그의 신분적인 우월감이 작용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소통을 지향한 역관 문인과 연암의 不疏通은 신분제 사회에서 당연한 반응이었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39) 이덕무, 『청장관전서』, 제51권, 『이목구심서』4.

40) 박지원, 『연암집』, 『우상전』, “嗟呼, 余嘗內獨愛其才, 然獨挫之以爲虞裳, 年少俛就道, 可著書垂世也, 乃今思之, 虞裳必以余爲不足喜也.”

41) 박지원, 『연암집』, 『우상전』, “虞裳一譯官, 居國中, 聲譽不出里閭, 衣冠不識面目.”

이언진의 입장에서만 조선의 신분제도가 더 견고한 감옥으로 인식되었을 뿐이다. 이언진이 받았을 심리적 상처를 연암도 짐작했던 모양이다.

사람이 문장으로써 서로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이 어찌 구구한 검사(劍士)의 한 기에 정도에 비할 뿐이겠는가? 우상은 아마도 때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일까? 그의 말에 어찌면 그렇게도 슬픔이 많은 말인가?⁴²⁾

연암은 이언진의 시에서 슬픔을 읽어냈으나, 그 슬픔의 근원은 살피지 못하였다. 단지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 의해 드러나고 알지 못하는 자에 의해 굴욕당한다고 하면서, 이언진 자신이 ‘불우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글 속에 슬픔을 많이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하고⁴³⁾ 말았다. 전적으로 이언진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연암이 지적한 이언진의 슬픔의 근원은 무엇보다 신분제 사회에 대한 울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분제도는 한 개인이 넘어설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이었던 것이다.

한편, 이언진 사후에 그의 재능을 기리는 기록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연암과 이덕무 외에도 金祖淳(1765~1832)⁴⁴⁾이 입전하였다. 김조순의 기

42) 박지원, 『연암집』, 『우상전』: “人之以文章相高下, 豈區區劍士之一技哉, 虞裳其不遇者耶, 何其言之多悲也…”

43) 최기숙(2005), 앞의 논문, 311쪽.

44) 金祖淳은 金昌集의 4대손이며, 본관은 안동이다. 1785년(정조 9) 약관의 나이에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규장각 검열이 되고, 규장각 대교를 거쳐 1792년(정조 16) 10월에 동지검사은사의 서장관으로 청에 다녀왔다. 같은 해 11월 폐관소설 탐독으로 인하여 문체가 바르지 못하다는 정조의 견책을 받고 사행 도중에 自訟文을 지어 바친 바 있다. 문장이 뛰어나 抄啓文臣으로 발탁되었고, 비명·지문·시책문·옥책문 등 많은 저술을 남겼으며, 竹畵도 잘 그렸다고 한다. 1799년(정조 23) 9월에 元子の 輔導를 맡았고, 國舅가 된 뒤로는 왕을 보필해 군덕을 함양시키는 일에 진력하였다. 그 당시 시벽의 당파나 세도의 풍을 형성하지 않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둘러싼 척족 세력들이 훗날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기반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조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忠文이다.

록은 이언진의 일본에서의 행적을 다소 과장하여 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의 출신에 대한 언급보다는 재능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⁴⁵⁾ 그리고 이 기록에도 일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며, 일본을 타자화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김조순은 1823년(순조 23) 서얼을 통칭해 줄 것을 獻議하기도 하였고, 그 다음해에는 西道의 인재등용을 아뢰기도 하였다. 김조순이 서얼 통칭을 헌의한 것이나, 서도의 인재 등용할 것을 제의한 것은 신분을 막론하고 인재를 중시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로써 이언진은 일본 사행 이후부터 명성을 얻기 시작하여, 사후에는 그가 치열하게 고민하며, 지향했던 신분을 초월한 소통에 이르게 된다. 즉 어릴 적부터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차별 없이 대우해준 스승 이용휴를 비롯하여, 일본 사행에서 만난 제술관 남옥과 서기 원중거·성대중, 그리고 생전에 대면하지 않았지만 수시로 그에 대한 정보를 접했던 이덕무가 그의 실력을 인정하고, 그의 재능을 기렸다. 또한 생존 당시에는 일본 사행을 기점으로 조선과 일본의 국경을 초월하여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언진 사후에야 비로소 동시대의 사대부 문인 박지원을 비롯하여 유학자 兪晩柱(1755~1788), 김조순 등이 入傳을 통해 그의 천재성을 기렸다는 점에서 이언진이 생전에 지향했던 타자에 대한 소통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겠다.

Ⅲ. 맺음말

본고에서는 이언진의 한시에 나타난 타자 이해의 표현 양상을 세 가지

45) 金祖淳, 『楓臯集』 권15, 「李彥瑱傳」: “一船中多能文士, 然神捷無有過彥瑱者, 日本人素狡, 每我使往, 輒羣至索翰墨, 或預構詩文…日未晡而書千筆, 賦五百律, 所記誦, 亦如之. 倭愈驚歎吐舌, 以爲神也, 於是彥瑱之名, 噪一時云.”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이언진은 그 자신의 신분적인 한계를 인식하였기에 불합리한 제도에 굴복하여 시대를 원망하며 불우하게 살기보다는 詩文을 통해 고민하고, 자기 시대 신분의 벽에 눌러 살아야 했던 인물군에 주목하였다. 그는 한시라는 표현매체를 통해 자신을 비롯한 신분제 사회의 타자계층을 대변하였는데, 이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제도에 대한 저항행위라 하겠다. 또한 그의 타자 이해는 조선의 타자인 오랑캐국 일본으로 확장된다. 즉 계미통신사의 수행역관으로 일본에 갔을 적에 역관보다는 문인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였다. 이언진은 여기서 재능은 있으나 非武士 집안 출신이기에,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고 묻혀 살아야 하는 일본 문사의 처지를 공감하고 入傳하여 세상에 알리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태도는 당시 신분적인 한계를 뺏속 깊이 경험한 이언진만이 감지할 수 있는 것이었고, 知己에 대한 최선의 배려였다. 傳은 비록 전하지 않지만, 이언진의 국경을 초월한 타자 이해의 극치를 보여준 행위라 하겠다. 또한 귀국 후에는 사대부로 대표되는 연암과의 소통을 시도하였으나 좌절당한다. 결국 병이 깊어져 죽음을 맞게 되나, 그가 생전에 지향 했던바 문장으로써 신분의 벽을 通하였다.

〈참고문헌〉

- 이언진, 『송목관신여고』, 한국문집총간 252, 민족문화추진위원회.
- 김조순, 『楓臯集』.
- 박준원, 『錦石集』.
- 박지원, 『燕巖集』.
- 강동엽, 『조선시대의 동아시아 문화와 문학』, 북스힐, 2006.
- 고바야시 유끼오, 「조선통신사와 민중」, 『日本學年報』, 제3집, 일본연구학회, 1991.
- 구태환, 「에도시대의 신분질서 사상」, 『일본학보』, 제69집, 한국일본학회, 2006.
- 김양수, 「조선후기 역관에 대한 一研究」, 『동방학지』, 제39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3.
- 김준형, 「청성잡기를 통해 본 거지와 거지 이야기」, 『민족문학사연구』, 제40집, 민족문학사학회, 2009.
- 김준형, 「조선후기 거지, 문학적 시선과 전승」, 『한국어문학연구』,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1.
- 남옥 저·김보경 옮김, 『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소명, 2006.
- 박경남, 「유한준의 노장사상 수용과 타자와의 소통」, 『동양철학 연구』, 제58집, 동양철학연구회, 2009.
- 박용만, 「이용휴의 문학과 한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박희병, 『저항과 야만』, 돌베개, 2009.
- 박희병, 『나는 골목길 부처다』, 돌베개, 2010.
- 원중거 저·김경숙 옮김, 『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소명, 2006.
- 이동순, 「이언진 문학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10.
- 정 민, 「『동사여담』에 실린 이언진의 필담 자료와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32집, 한국한문학회, 2003.
- 정영문, 「조선시대 대일사행문학 연구: 『해행총재』 소재 작품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정영문, 『조선시대 통신사 문학연구』, 지식과교양, 2011.
- 조규익, 「조선조 사행록 텍스트의 본질」, 『한국문학과 예술』, 숭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2008.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제4판), 지식산업사, 2005.
- 최기숙, 「18·19세기 ‘複數창작 전’의 창작 경위와 글쓰기 방식-흔적, 기억, 창조: ‘언어적’ 인간의 탄생과 棲息」, 『고전문학연구』, 제27집, 한국고전문학회, 2005.

〈Abstract〉

Aspects of Expression about Understanding the Other in Lee Eon Jin's Chinese Poem

Suh, Soo-Keum

This paper shows the aspects of expression about understanding the other in Lee Eon Jin's Chinese poem. As it is known, Lee Eon Jin was 'the other' in a viewpoint from noble officials. In a society of limited position where although one has ability but nobody hires him, Lee Eon Jin tried to understand the other through media and also to communicate without any limitation of social position. First, he spoke for Hodongins who were the others from noble officials. Second, he communicated with Japanese literary men who were the others from Chosun people. Third, after coming back to Chosun, he tried to communicate without any limited social position which were the biggest barrier in the Chosun society. But he realized that in an unjust status society, communication was difficult. After his death, finally his writings could be communicated through the wall of social positions that were so strong like a prison. His acts of writings should be great adventure and subjective decision as a literary man in a non-mainstream group in Chosun society.

Key word : Lee Eon Jin, Hodongin, Japan, noble official, the other, communication